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4월호
2011

광야의 소리 어디로 가나

알버커키 주변에 리오란초, 산타페와 라스쿠르세스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주의 동쪽으로는 클로비스, 서쪽으로는 젤럽, 남쪽으로는 라스쿠르세스, 북쪽으로는 화밍톤까지 한국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곳이라면 광야의 소리가 보내진다(아래 지도에 ●로 표시된곳).



뉴멕시코주의 땅 크기는 미국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주이다. 2009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주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을 조금 웃도는 정도이다. 그러니 뉴멕시코 주의 한인들 숫자야 말할 것도 없다. 한인들은 주로 25번 도로와 40번 도로가 만나는 도시인 알버커키와 리오란초에 많이 살고 있고 그 외에 한인들은 작은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있다.

광야의 소리는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뉴멕시코 한인들의 소식들을 취합해서 알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 다른 주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찾을 수 있는 구심점은 역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이런 교회들을 찾아서 소식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큰 한인 상점을 통해서 보내기도 한다. 지난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를 통해서 알린 바와 같이 광야의 소리 지면을 각 교회의 활동이나 한인 교인들 소식들을 위해 할애할 방침이다. 광야의 소리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자유롭게 교인들의 글이나 교

회 소식에 관련된 사진들을 이메일(Kuchachoy@q.com)로 보내주면 다음 호에 개제된다. 물론 교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좋은 글이나 소식도 환영한다. 미국에 살다보니 누구나 글쓰기나 철자법 맞추기가 어려워서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글이라도 보내주면 편집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고쳐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 편집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에 광고를 통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고 있는 업소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감사드린다. 인쇄에서 우편 발송까지 들어가는 크고 작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고 후원은 광야소리에 커다란 힘이 된다.

한인회관 순회영사 업무

지난 4월 4일 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업무 가졌습니다.



3월 교역자 월례회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주님의 교회

참석자 : 윤성열목사, 김의석목사 내외, 신경일목사 내외, 김기천목사, 전종범목사, 전종철목사 내외 (9명)

1. 예배

기도 : 윤성열 목사

찬양 : 김의석 목사

말씀 : 신경일 목사

본문 : 갈라디아서 5장16절

설교 : 신경일 목사

본문 :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갈 5:16)

Walk in the Spirit, and you shall not fulfill the lust of flesh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쪽바리”라 하며 우습게 보는 유일한 민족

* 세계 유일의 분단국

*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율,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 자국 축구리그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 열라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 - 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민족!

*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 버리는 미스터리 민족!

* 그러면서도 운이라면서 시큰둥해하는 속 넓은 종족!

* 미국인들로부터 돈 벌레라 비아냥 받던 유태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 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민족!

* 조기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민족!

*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 자리를 훙쓸고 다니는 미스터리 민족!

*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11시 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틴 미스터리 민족!

* 물건은 비쌀수록 잘사는 미스터리 나라!

*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 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민족!

*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똑 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뜨는 엄청난 종족!

* 쓰레기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도 망할 듯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종족!

* 6년 동안 영어공부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못하는 허무종족!

* 조직폭력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종족!

* 세계 1위의 제왕절개 종족!

*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민족!

* 땅덩어리는 작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민족!

* 세계인터넷 접속 1위를 차지하는 할일 없는 종족!

* 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대씩 있는 간 큰 민족!

* 남이 자기나라 욕하면 싫어하면서 도리어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는 종족!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네이버 유머에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현장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며 그 결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바울의 선언서이다. 갈라디아서는 마치 그리스도교의 독립 선언문과도 같으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랑의 법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다. 그 자유가 주는 능력이 곧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King James 번역에는 Walk in the Spiri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와 부르게 하고(갈 4:6)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in Spirit) 성령님 따라서(by the Spirit) 처신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의 삶 속에서 10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을까하고 하나님 말씀 찾아가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The Attitude of My Life입니다.

생활의 태도 빌립보서 2장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는데 NIV에는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바로 예수님의 가졌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The Words of My Mouth 입술의 말입니다. 시편 19편14절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남에게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함으로 영적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히13:15)

셋째로 The Reaction to Conflict 갈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 다툼,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response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넷째로 The Obedience to the Word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다섯째로 The Fruit of My Life 생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며 지구촌에서 무서운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쓰나미, Haiti에 대지진, 미국에 Katrina 대홍수, 이웃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긴박한 이때에 열매를 맺지 못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히6:8) 갈라디아서 5장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섯째로 The Motives of My Heart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 행위를 주시하지만 그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이기적(self centered)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인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The Thoughts of My Mind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호와가 말하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예레미아 29:11)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늘 점검(examine)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계 복종케 하니”

여덟번째로 The Humility of My Life 생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 무가치함, 죄악을 깨달을 때 주 앞에서 낮아지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겸손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3,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홉번째로 The Maturity of My Life 생활의 성숙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악한 세대를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이 세대의 거짓된 풍습에 따르지 말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열번째로 The Unity with the Body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은 사랑이다. 곧 사랑으로 맺어진 다툼이 없는 일치가 성령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이상의 10가지 area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힘으로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나와 죄와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광고 : 김두남 한인회장

- 1) 순회영사 업무 - 4월 3일(월) 오전9시 - 오후2시
업무 : 재국민 등록,
- 2) 일본돕기 성금모금
한인회 주체로 모금을 하려 한다.
- 3) 목회자 단체 사진
- 4) 신경일 목사 인디언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와 후원
- 5) 4월 18일(월) 한인회에서 지역 목회자 식사를 대접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2.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 회의

1)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와 더불어 일본 돋기 성금모금을 진행?

-시간: 오전6시, 장소: 감리교회

-순서: 김의석 목사에게 전임

2) 성금모금을 하고 전달할 곳

-지역 목회자였던 박인배 선교사님께 드리는 것 (김기천 목사)

-한인회 주체로 보내서 어디로 보내든지 보내고 보고 (김두남 회장)

3) 복음성가집

-복음성가 전담 (전종철 목사)

4) 사모님들 모임을 권면

5) 이스라엘 성지순례

-정보를 수집해서 광야소리에 광고를 실은 후 진행

6) 광야의 소리

-개교회에서 설교문 또는 활동과 교인 소개글, 혹은 다른 글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 개교회 소식

감리교회

5월 초에 (군 예편 후 복귀) - 전종범 목사

East Gate교회

-미국교회 컨퍼런스 금요일 오후7시, 토요일 오후6시

뉴멕시코주 한인회 활동

3월 31일 어버이회모임을 Pacific Rim의 새 주인이 되신 양태열, 엄선미 사장부부의 초청으로 22명이 참석해서 새로 시작하신 사업의 변창을 기원하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부터 어버이회모임을 이전과 같이 매주 수요일에 갖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Closed on Sundays

주부 무용단모집



한인회에서 주부님들 또는 어머님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무용단을 모집합니다.

주부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의 좀처럼 쓰지 않는 근육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국의 아름다운 춤동작을 추어보세요. 춤은 건강을 위한 보약입니다. 한국 무용장단에 몸을 맡기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가져보세요.

한인회 주부 무용단은 한국무용 수업을 통해 한국무용을 익히고 알바커기에서 있을 여러 행사에 무용단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이 공연들을 통하여 한국 만의 고유한 멋, 전통과 몸의 선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부님들과 어머님들의 몸과 마음을 춤에 맡기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휴식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무용수업

대상: 주부님, 어머님

화요일 또는 목요일 10:30-11:30 에 수업할 예정입니다.

(모집단원의 사정에 따라 추후 일정이나 기타 사항들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1달 \$ 45

장소 : 한인회

강사: 이선아 (한인회 예술부장) 리틀 엔젤스, 'ㄹ' 무용단, 서울 시립 무용단 활동, 경희 대학교 무용과 졸업, 김백봉 무용단 활동, 뉴멕시코 대학 무용 대학원 졸업

문의사항: 이선아 505-828-0306, 505-515-4211

김두남 505-270-1984

e-mail: ninosophia@hotmail.com



Asian Festival에서 지전춤을 선보이는 이선아님

일본지진모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뉴멕시코주 한인회회장 김두남입니다.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본 한인회주최 뉴멕시코주 목회자 협의회의 협력으로 일본지진피해에 대한 제1차모금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간은 3/27-4/26 까지이고 목회자협의회 결정으로 1차모금은 박인배선교사님 일본선교지로 보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곳 알버커키 지역은 각 한인마켓 아리랑, A-1, Kim's 마켓 세곳에 모금함이 준비되어있고 한인회관에도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ay to the order of Tokyo Homeless Ministry-Josh Park (T.H.M-J.P)으로 적어서 보내시면 IMB 관리 하에 사용하게 되며 세금공제를 받게 됩니다. 알버커키지역이 아닌 곳에서 모금에 참여하실 분은 한인회주소로 보내주시면 기간까지의 모금을 아래 주소로 한인회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특별선교현금 지원:

IMB / Donation PO Box 6767 Richmond, VA 23230-0767

뉴멕시코대학의 랭킹

지난 3월 22일자 알버커키 저널(Albuquerque Journal) 신문에 발표된 "5 UNM Programs Rank in Top 10"이란 기사에 의하면 매년 US News & World Reports지에서 실시하는 최우수 대학원 프로그램 선정에 이 곳 뉴멕시코 대학원의 다섯 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랭킹 Top 10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Top 10에 들어간 프로그램을 보면, 미술대학의 사진학과(No. 5), 법과대학의 Clinical Training Program (No.7), 간호학과의 Midwifery Education (No.5), 의과대학의 Family Medicine (No. 8), Rural Medicine(No. 2)이 된다.

여기서 발표한 랭킹은 전국의 1200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인데 이 보고서는 많은 대학 졸업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대학원 선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UNM대학원 프로그램의 랭킹이다.

UNM Rankings

- Medical School primary care: No. 28; rural medicine: No.2; family medicine: No.8
- Pharmacy: No.32
- Nursing: No.79; nurse-midwifery education : No. 5
- Fine Arts: No.50; photography: No. 5; printmaking: No.11
- School of Law: No. 79; clinical law: No.7
- Engineering : No.85

Source: U.S. News & World Report Best Graduate Schools 2012

(자료제공: 이경화)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Mon~Sat
10:00~6:00

Sunday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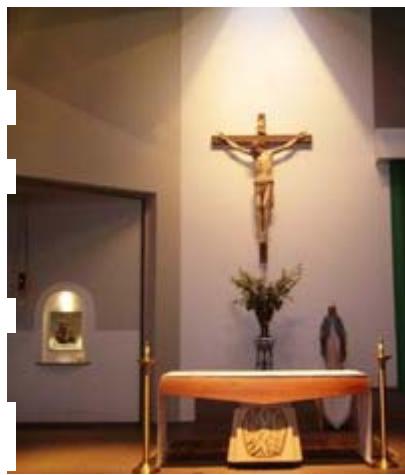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성령세미나와
피정 및 강론으로 유명
하신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님(미리내 천주성
삼 성직 수도회 소속)
께서 덴버로 성령 세미
나(5월 27일-30일)와
성체 성사에 관한 피정
(6월2일-5일)을 해주
시려 오신다고 합니다.
멀리 미국까지 오시는
기회에 원하는 다른 공
동체를 방문하시어 피정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
셨습니다.

이에 저희 알버커키 가톨릭공동체에서 피정을 실시하
기로 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6일 - 9일 까지 매일 밤
6시 부터 10시 반까지 4일간 진행되며 참가자는 받
드시 4일을 참석해야합니다. 이번 피정의 주제는 성체
성사와 미사에 관한것으로 3일 째에는 개인 면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이미 20여명정
도의 참여가 이루어져 장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참가자는 성인 남녀에 한하여 주제가 성체성사 인 관
계로 영세를 받으신 교우에 한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나 질문은 가톨릭공
동체 총무(이성희 요한)

SLEE1005@GMAIL.COM에 문의 하십시오.



에세이

멋지게 늙기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사람이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총인구 대
비 노인인구가 7.2퍼센트로 고령화사회에 들었는데,
2008년에는 10.3퍼센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이면 14.0퍼센트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이
면 20.0퍼센트를 넘어 초(후기)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주요 선진국에 비
해 늦었지만, 거기서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놀라울 정도의 초고속행진이라고 한다.
우리사회의 이런 특이한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너
무 낮은 출산율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람의 일생은 보통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합한 제1연
령기, 청년기와 중년기를 합한 제2연령기, 장년기에서
노화가 시작되는 때까지의 제3연령기,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는 제4연령기로 나뉜다. 이 중에 제3연령기가
크게 늘어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는데, 80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 40세부터 70세까지의 30년이 그에 해당
한다. 혼히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이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고 알고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
여 면밀하게 따져본 후 식수의 개선이 의학의 발달보
다 수명의 연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인생의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것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다 노년으로 접어드
는 시기가 겹치게 되니 인생으로서의 성공여부가 전적
으로 제3연령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윌리엄 새들러 William A.
Sadler 교수는 40세 이후 삶의 여섯 가지 원칙으로
중년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자신을 배려하는 삶을 살
것이며, 일과 여가 · 현실과 낙관주의 · 성찰과 실행 ·
개인의 자유와 타인 네 가지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역
설했다. 자기를 배려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충고
일 것이다. 오래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사람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노인은 삶의 지혜를 가진
존재로 대접받아왔다. 모든 노인들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 현명해
지는 일은 드문 것도 사실이다. 노년에 지혜가 생겨나는
것은 일생 동안 가지가지 일을 겪은 결과이다. 그
럼에도 어느 때부턴가 노인은 지혜로움이나 존경의 대
상이기보다 사회의 부담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추세
가 고령사회에 이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더 심해지리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사회
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
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R

나이는 안 먹을수록 좋다지만, 누구나 운명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나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 해서 나이 들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만이 상책이라 할 것이다. 미리미리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건강과 재력이다. 나이 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첫째도 운동, 둘째도 운동, 셋째도 운동이라고 노인학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려서부터 적성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하게 해나가다가 나이 들면 체력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 운동하는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습관은 그냥 허투루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재산상의 능력은 건강할 때는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되겠지만, 자칫 병들기 쉬운 노년을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건강과 재력은 긴 시간에 걸쳐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가짐과 행동이라고 하겠다.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옛날 선인들의 예법을 보면, 예순 살이 넘은 사람은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망스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늙음을 한탄하며 슬퍼하는 속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노인인구가 많아진 오늘날에는 늙어서 가져야 할 마음과 취해야 할 행동이 더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을 본다. 소위 '나이 들어 대접 받는 비결'이 인터넷을 통해 수없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곱게, 멋지게 늙어가는 요령들이다.

늙은이들의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늙는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터득한 지혜를 젊은이에게 나누어줄 수 있으면 보람찬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스무 살 나이에는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칠십에는 나도 모르게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더라. 이것이 지혜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캐나다 동부에 이르는 지역과 세계 최대의 섬인 덴마크의 그린랜드 등 북극지방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 중에서도 이누이트 Inuit 족은 유별나게 원로에 대한 존경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들었다고 원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호칭은 다른 사람들이 선사해야만 한다. 생사를 가르는 극단적인 위험을 몸소 수없이 겪어낸 나머지 그 어떠한 시련에도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원로다. 그의 지식은 시련의 체험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고, 요청 받았을 때만 충고한다. 그래서 원로가 말하면 사람들은 경청하는데, 그렇다고 자주 말하지는 않는다. 항상 사람들이 갖다 드리는 찻잔을 받는 사람이 바로 원로라고 알면 틀림없다고 한다.

모든 생물이 진화하듯 인간의 본성도 끊임없이 진화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필연이었으리라. 도덕이나 덕망은 더 많이 소유하되 재물이나 권력은 덜 가지는 쪽으로 한결같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 아니던가. 적게 갖고 남에게 많이 줄수록 사람의 지위는 높아진다. 소유한 것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많이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지혜란 오직 이기적인 집착과 욕망의 포기에서만 생길 수 있다고 볼다는 말씀하셨다.

노년은 쓸쓸한 겨울이며,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다가오는 황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년에는 나름대로의 낙과 멎도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움도 있다. 우리는 예절, 옛 가구, 옛 그림은 아끼고 좋아하면서도 오래되어 원숙하며 잘 훈제된 노인의 아름다움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술의 향기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노인의 품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십 년 전이던가, 미국인 노부부가 우정의 사절단으로 광주에 와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다. "난 은퇴한 사람이오. 내가 하는 건 인생을 즐기는 일뿐이라오." 남편의 티셔츠에 써어있던 글이다. 남은 시간을 즐기며 보내는 것도 노인들이 빼놓지 않아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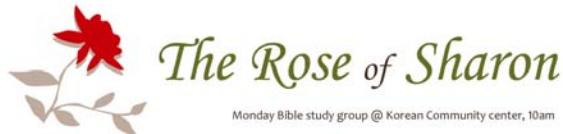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멋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걸터라: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주님의 교회 '샤론의 장미' 월요성경공부반을 소개합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첫번째 '사랑의 띠' 모임을 위해 준비한 섬김이들-



여성들은 복잡하다. 여성들은 미묘하다. 마치 알버커키의 봄날처럼 바람이 불었다가 후끈 더웠다가 그런가 치면 갑자기 쟁하니 찬바람이 불어닥친다. 유행한 개그처럼 "그때 그때 달라요"다. 그런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사연도 많을까? 사진의 얼굴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개성도 많아 보인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며느리같은 이도 보이고 시어머니 같아도 보이고 친구도 같다. 다들 웃고 있다. 웃는 얼굴이 한결같이 아름답고 환하다. 참 갈 데도 없다는 알버커키의 월요일 아침이면 한 분 한 분 한인회관으로 모여든다. 한아름씩 솜씨낸 음식들을 이고 지고..

요즈음의 이슈는 '생각훈련'이다.

생각! 이 생각이라는 통로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가 하면 때로는 긴밤을 끝내 세워버리고 말 때도 있다. 하루의 시작이고 마침인듯하다. 생각의 통로를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에 복종시키기까지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표현한다. 하나의 사건에 사람이 열이면 열가지 생각이 따라오고 열가지 결론이 난다. 지나고 보면 감정이었다. 틀린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하지가 않았다. 그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다음에도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결론내고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열이면 열이 다른 현실에서 그렇다면 길이 없는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사는 길!

'그때 00000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과거에 대한 미련에 묶여있을 때가 많다.

'내게 00000000 일이 닥친다면'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지낼 때 또한 많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 000000 생각을 하고 있을거야'라는 필요없는 생각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산다.

30대는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가 최대의 관심사다. 힘겹고 피곤하다.

40대 후반부터는 품안에 있던 아이들이 슬슬 떠날 채비를 한다. 외로워진단다.

50대는 시간이 급하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면서 뭘해놨나 허무해져 온다.

6,70 건강이 최대의 문제고 관심사다. 잠자다가 안녕을 고하게 되거나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속얘기를 나눈다. 나이 대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고 흥미도 다르다. 그런데도 서로에게서 듣는 것이 곧 배움인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지나온 삶을 이제 막 살아내려는 어린 자매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모두가 울음이 터진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다. 나쁜 생각이 우리의 전부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구나를... 나쁜 생각의 자리에서 보파리를 싸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사짐을 옮기기로 다짐한다. 서로 거들어 주는 손길 또한 바쁘다. 때로는 그러다가 부딪친다. 이러쿵 저러쿵 방해 공작도 많기도 하다. 과거의 습관이나 악한 생각들은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뭘 그렇게 이사까지 하실려구? 그냥 편하게 살던 데서 사시지.'라고.. 그러나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4:8~9) 그것은 선택이나 제안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다. 마음의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위로부터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참된 평안은 맛본 자만이 아는 평안이다.

봄, 가을이면 자연에게서 배울 것이 많기에 야외로 나간다. 그렇게 한 바퀴 휙 돌다보면 들에 편 꽃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눈이 뜨인다. 조용히 걷는 길가에 이름 없는 꽃들과 가시 돋힌 선인장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걷는 동안의 생각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꽂피우고자 하시는 섬세한 돌보심에 감사함이 솟구친다. 그때사 비로소 복잡하던 것이 단순해지고 많던 인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주님의 교회는 이 여성들의 무릎에서 세워진 교회다. 진한 모성으로 알버커키를 그 무릎에 올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해 오던 작은 기도모임에서 시작한 이름 없는 들풀같은 ..

주님 저희들이 알버커키의 70만 영혼들을 중보할 수 없는 그릇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 생각 속에서 아무 것도 잉태해내지 못하는 그저 바람부는 봄날처럼 먼지만 일으킬 뿐인 우리들인 것을 그러나 ‘위엣 것을 생각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이사짐을 싸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광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소: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인회관

어떻게: 10시~10시20분까지 친교

10시20~10시50분까지 찬양 및 중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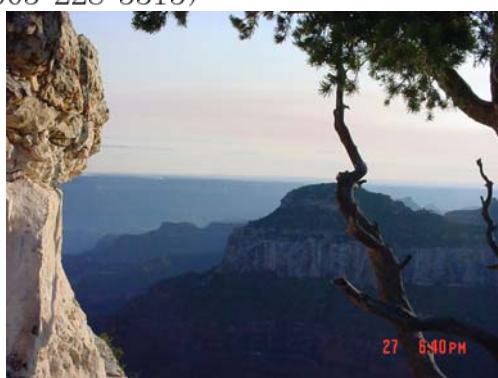
10시50분~11시20분까지 설교(김의석목사)

11시20분~12시까지 그룹 나누기 (박연복, 홍정희, 이순조 팀장을 중심으로)

12시 점심식사~

소속: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23, (505) 903-2297, 2296)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연복 반장님께 연락 주십시오. (505-228-5315)



믿음이 깊은 곳으로

조영진 감리사

믿음은 철저해야 의미가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으면 부담만 되고, 믿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삶을 걸때 믿음이 갖는 생명력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 즉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한 마디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해답이다. 왜 사는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이 질문에 따라 개개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지향점이 달라진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인생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 믿음은 인생과 가정,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한 인생의 길, 목적,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더 나아가 가정, 역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영에 대한 이론을 통달했다고 해도, 물속에 직접 뛰어들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 많더라도 그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철저히 삶을 거는 결단이 없었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첫걸음 단계, 지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Faith as Knowledge 상태에서 Faith as Relationship의 단계, 즉 관계로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했다. 영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시므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게 되면서 관계로의 신앙이 시작된다.

영국의 어느 극작가가 .”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인격을 거둘 것이요, 인격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라고 했다. 선한 행동을 계속하면 선한 습관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결국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다. 하루 한 번 성경말씀 읽고, 하루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두 가지 거룩한 습관을 반복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관계로의 신앙이 되어질 때 기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기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해결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기도란 나와 하나님 간의 교제요 사귐인 것임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셔도 기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이다.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늘 평탄한 길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길이므로 고통의 길이라도 괜찮고, 결국 그 길은 언제나 좋은 길이다.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계의 신앙에서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성의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뜻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 즉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관계의 신앙Faith as Relationship에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간다면, 순종의 신앙, Faith as Obedience의 단계로 나아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즉 우리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 통치하심, 우리 삶 속에 주인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순종으로 우리 삶 속에 고백될 수 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주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제가 존경하오나, 고기잡는 문제는 제가 전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지식과 경험, 내 주장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라 어떻게 해도 안되는 날입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운명론적 사고를 가진 경우이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은 이미 하루종일 고기를 잡아서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은 너무 지쳐서 못하겠고요, 내일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순종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지만, 순종을 연기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미루지 않았다.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중요한 출발점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된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Selective Obedience이다. 둘 다 불순종이다.

믿음이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순종하게 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엔 할 수 없다 싶은 경우에도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여기시기에 요구하시는 것이다. 순종하면 열어주심을 믿자.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안제는 부귀영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KOREAN
B.B.Q
HOUS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신앙은 순종이다. 예수믿는 자로서 말만 그럴 듯하게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삶 속에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위선자이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한다. 베드로가 예수님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순간은 베드로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출발점이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것이다.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 자란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깨어지는 아픔이 동반된다.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나의 안락한 테두리, comfort zone을 깨고 나와야 하는 변화가 따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훈련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훈련인 열심히 말씀 읽는 훈련, 기도훈련,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훈련, 즉 개혁된 속회훈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다. 훈련이 없이는 오합지졸일 뿐, 제자가 될 수 없다. No discipline, no disciple.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신앙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추구해 가는 삶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신앙의 성숙이란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 안에 철저히 복종해 나가는가 하는 훈련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내가 믿는다는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종점에 가까워지면, 믿고 기댈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비가 암만 쏟아져도 그릇이 엎어져 있다면 한 방울의 물도 그릇에 고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해도,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응답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지 주일날 왔다갔다 하는 종교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다. 믿음은 지식에서 관계로, 순종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 믿을 바에야 철저히 믿자. 깊은 곳으로 갈 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낚은 것처럼 신앙의 보람과 의미를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 그것이

넘쳐서 나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남과 나누고 초청하게 되는 것이 전도이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서 자라가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봄철 부흥집회를 위해서 특별 강사로 조영진 감리사님을 모셨다. 위에 글은 집회 기간 동안 감리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소영 자매가 정리한 것이다. 4회에 걸친 집회의 전체주제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였다. 3/18 저녁: 믿음이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겠다. 3/19 새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3/19 저녁: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깊은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겠는가. 3/20 주일예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있게 이해)

친구, 건수를 보내며

최 원 길 집사

미시간(Michigan)에 사는 강신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원길아! 너 건수 소식 들었니?”

뜻밖의 질문이었다. 최근 들어 전화와 이메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던 건수가 요 며칠간 소식이 없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던 차였다. ‘건수 소식이라니?’ 문득 몰려오는 불안과 함께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신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순간은 정말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영겁의 시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건수가 며칠 전에 맨하탄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서 산보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쓸어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났단다. 이를 후인 6월 5일에 건수가 다니던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데.”

신조는 모든 느낌과 감정을 잃어버린 듯 지극히 폐마른 음성으로 소식을 알려왔다. 그 몇 마디가 김건수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전하는 신조나 듣는 나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어안이 병벙할 뿐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친구의 사망 소식. 그것은 누구에게나 청천벽력 같은 놀라움을 안겨주며 곧이어 끝을 알 수 없는 허탈함에 빠지게 한다.

내일 있을 건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왁 행 비행기를 타기는 했으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일주일 전 전화 통화에서 새로 맞은 부인 양 권사와 내가 사는 뉴멕시코에 와 2주일간 함께 지내기로 약속하고 비행기 표를 산 후 일정까지 보내왔다. LA에 사는 용채 부부도 합류하여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등지를 다녀 보자는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 사람의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건수와 지냈던 옛일들이 주마등같이 머리를 스치고 지

나갔다. 고3 때는 2반에서 함께 지냈으나 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자기 일을 충실히하고 필요하면 남의 눈치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친구였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고3 때 좌석 번호를 정하느라 키 순서대로 설 때 중간키인 건수는 허리와 다리를 꾸부리며 앞으로 다가서더니 4번으로 제일 앞 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건수의 집념을 보인 한 단면이었다.

1977년 내가 아이오아 주립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직을 한 곳이 우연히도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전기과였다. 그 대학은 오대호(五大湖) 중 하나인 Superior 호수를 밑에서 꼭 찌르는 반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호수와 산을 하얗게 뒤덮이는 낭만적인 도시 Houghton이라는 곳에 있었다. 인구 1만 5천 명 중 학생이 반이나 되는 조용한 대학도시였다.

그때 그 학교 광산과 부교수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건수를 만났다. 우리의 반가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을 30년 뒤인 지금 건수와 나는 똑같이 하나님에 하신 놀라운 일이었음을 공감하고 있다. 내가 강의 준비, 시험 출제와 채점 등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입생 환영인지 초년병 위로인지 모르겠다며 포도주 병을 들고 들어와서 건수 특유의 구수한 화술로 옛날 얘기에서부터 시작해, 학교 선임자로서의 충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키, 얼음낚시, 캠핑, 하이킹 등 희망찬 얘기를 나누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 다음날 수업을 망쳤던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둘이 즐기던 이러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남달리 까다로웠던 건수의 부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건수에게는 나를 만나지 말라는 금족령이 내려지고, 나는 술꾼으로 낙인이 찍혀 건수와는 부인 모르는 데서나 가끔 만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후 3년 뒤 나는 산디아고로, 건수는 워싱턴 주로 거의 같은 때에 그곳을 떠났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우정은 거의 30년 뒤인 지금 묘하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 삶에 특별한 촉매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겨울, 내가 아내를 폐암으로잃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을 때였다. 오랜만에 건수에게 전화가 왔다. 성격 차이로 어려웠던 오랜 결혼 생활을 이혼이란 이름으로 정리하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꺽이나 자신에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거의 동시에 우리 둘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났으며 그 변화 속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다. 건수는 재혼한 부인 양 권사와 뉴저지의 조용한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작은 교회에 다니며 '40년간 광야에서 혼매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러 신앙생활로 삶의 보람을 찾는다'며 현재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당시 나는 삶의 변화를 찾아 27년간 살던 산디아고를 떠나 Rocky 산맥 남단인 뉴멕시코에 있는 알버커키라

뉴멕시코 성경교회

전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파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는 도시로 이사하여 높고 푸른 산과 거친 광야가 야릇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런 망중한 속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던 중 미국에 오기도 전인 40여 년 전에 사귀던 첫사랑의 여인이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간암으로 잃고 착실한 기독교 신자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겨울에는 Florida에서 살고 있었다. 산을 좋아하여 자칭 자연주의자임을 자랑하고 때로는 기독교를 거침없이 비판하던 나와는 결코 가까워 질수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이메일과 전화로 옛날 대학생 때를 회상하며 그때 피우지 못했던 청춘의 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겨울의 Gray Romance로 이어 보자 하는 낭만적인 이상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40년 이란 긴 세월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서로 달라진 현실을 받아드리고 타협하여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는 옛사랑의 여인과 나의 자연주의적인 인생관 속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비합리적, 비생산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던 나에게는 큰 갈등일수 밖에 없었다. Florida 와 New Mexico라는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40여 년 동안 변화된 현실 즉 서로의 생각과 모습은 무시한 채 글과 전화로 연결된 우리의 Gray Romance는 비교적 빨리 진전되었으며 그럴수록 나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사랑을 위하여 종교를 바꾼다는 말은 소설 속에서나 읽었지 이것이 내 문제가 되어 현실로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종교를 바꾸는 어려움보다는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하는 한편 사랑과 종교를 다 가질 수도 있다는 이기적이지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변명도 해봤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2008년 12월 28일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다. 그 주 일요일 그 기도문을 들고 근처에 있는 미국 침례교회를 찾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 보았다.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지는 듯 하며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즐거움으로 마음이 뿌듯해졌다. 예배 후 그 교회 목사를 찾아가 기도문을 보여주며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쓴 기도문을 읽고 난 그 목사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는 낙제이지만 너의 뜻은 알겠다며 침례를 거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친절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었다.

가로 막혔던 장애물을 제거한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우리의 Gray romance는 실제 생활로 이어졌고 그녀 와의 신앙생활 역시 나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2009년 10월, 뉴욕에서 있었던 3박 4일의 Ecclesia에서 받은 구원의 확신과 다음 해 1월, 2주간 다녀왔던 볼리비아 선교 여행 중 하나님이 그곳 선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수요예배 (Wed. Night Worship)

§ 7:00 pm (Wednesday)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505) 238-3551

알버커키 한인 전주교 공동체

이사현 회장

기도 월 모임

§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505-271-803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교사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대한 볼리비아 식 결혼식 등등)을 통해 나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원길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로 놀랍지?”

얼마 전까지 전수가 자신있게 내게 자주 하던 말이다. Houghton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추억과 함께 전수와 나에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을 뿐이야”

긴가민가하면서도 전수와 맞장구를 치고 나면 정말 그렇듯 느껴지기도 했다. 세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 사이에서 자신을 재정립해 가려 노력하는 내게 전수와의 대화는 신앙의 선배로, 믿음의 동반자로 나의 믿음을 키워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뉴욕에서 있었던 Ecclesia에 갔을 때 단풍으로 붉게 물든 아름답고 조용한 Sparta라는 도시에 사는 전수의 아파트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면서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뜻 깊은 만남을 즐길 수 있었다. 초면인 우리의 아내들 역시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신앙의 길인 믿

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John Bunyan이 쓴 <천로역정>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서로 격려하며 같이 가자던 믿음의 동반자 건수와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그 뿐인가. 7월 4일, 이곳 뉴멕시코에서 있을 나의 결혼 축하연에 건수와 용채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이를 뒤에 볼리비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최천휴 선교사 초청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세 집이 한자리에 모여 믿음 속에서 옛 우정을 더욱 다져가자는 계획을 세웠었다.

볼리비아는 건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나라였다. 전자제품에 필요한 건전지의 필수품인 Lithium의 매장량이 풍부한 볼리비아는 한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전자 제품 선진국들이 그곳 채광권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을 배척하는 현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었다. 건수는 100년 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 사업이 우리나라에 미쳤던 일을 상기하면서 60년 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상태와 비슷한 볼리비아에 가서 그동안 쌓아온 광산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볼리비아의 아펜젤러를 꿈꾸며 그곳에서의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뉴욕 공항에 도착한 즉시 렌터카를 빌려 건수 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건수가 쓰러졌다는 장소인 맨해튼 중심 31st St와 5th Ave 코너로 차를 몰았다. 복잡한 링컨 터널을 지날 때 일주 전쯤 건수에게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만 잤다.

“우리 집은 누구나 환영이야.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은 꼭 지켜야 돼. 첫째, 우리와 있는 동안 우리 부부가 가는 새벽기도에 함께 가고, 둘째 토요일마다 쌌디아 산엘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산이 좀 높고 험해. 왕복 거리가 24km인데 대략 6-7시간 걸리지.”

건수는 나의 요구조건을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였다.

“야 그거 문제없어! 뉴욕엔 산은 없지만 사무실에 올라갈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또 텁텁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맨해튼 거리를 걷는 것이 내 취미야.”

건수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복잡한 5th Ave에서 31가를 향해 차를 몰아가면서 건수가 저녁시간에 여기를 걸어갈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멀지 않은데서 군중을 헤치고 활발하게 걸어가는 젊은 남자가 보인다. 이러했을까? 또 한편엔 어깨를 축 들어뜨리고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며 걸어가는 남자도 보인다. 저러했을까? 어느덧 31가에 도착하여 차를 세워놓고 네거리를 둘러보았다. 이리저리 걸어보며 건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쓰러진 후 누군가 빨리 손을 썼다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무표정하게 어깨를 스치고 분주히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로 보아서는 누구 하나

신경 쓸 것 같지 않았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 또한 건수 말대로 ‘하나님이하시는 놀라운 일일까?’ 나는 물결처럼 흘러가는 군중 속에 명하니 서서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있을 장례식 장소를 알아 둘 겸 교회를 향해 차를 몰았다.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한 신조에게 전화를 했다. 막 출장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중이라며 도착하는 즉시 비행기 표를 사서 오늘 밤 안으로 도착하겠단다. 내가 있는 호텔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교회 앞을 지나가니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 건수의 부인 말 한대로 금요 예배 중인 듯 했다. 건수 부부가 열성적으로 성가대, 남 선교, 여 선교, 등 모든 일을 통해 자랑스럽게 섬기던 교회다. 교회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살펴보았다.

20여명이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막 끝났다. 초췌한 모습의 양 권사가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과 장로님을 소개하며 내일 있을 장례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준다.

호텔에 돌아 왔을 때는 자정이 다 되었고 신조도 막 도착했단다. 오랜만에 만난 신조와 밤늦은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었다. 최근에 건수가 한 말이라며 신조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내가 미처 몰랐던 건수의 또 다른 지난날을 알 수 있었다. 1993년경 건수가 핵폐기물 처리 전문가로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을 때였단다. 뉴욕에 있는 UN본부에 온 북한 대표들이 건수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건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들은 건수의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본 후 건수에게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왔다. 건수는 이 사실을 미국 정부와 의논했고 미국 정부는 북한의 초청을 수락할 것을 권할 뿐 아니라 모든 신변 보호 보장을 확인해 주었다. 다만 북한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지 미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폭탄이 어떤 종류(우라늄 혹은 플루토늄) 인지와 핵개발 진행 사항을 건수를 통해 알아보자 했던 것 같다는 것이 건수의 추측이었던단다. 그러나 건수는 부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을 기회를 택할 수 없었다는 말을 최근에 신조에게 하더라는 것이다.

건수의 장례식은 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간단하게 열렸다. 가족으로는 남동생 셋과 여동생들이 한국과 캐나다에서 왔고, 외아들인 필립의 가족이 참석했다. 신조와 나는 건수에게 ‘잘 가라,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건네고 공항으로 향했다. “먼 미국 땅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우리 둘이라도 건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 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 아니겠니.” 우리는 뭐라 형언할 수 없이 울적한 마음을 그 한마디로 서로 위로하며 헤어졌다.

천로역정의 동반자, 볼리비아의 아펜젤러를 꿈꾸며 그곳 선교를 계획하던 건수, 능력도 있고 할일도 많은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은 왜 불러 가셔야 했나?

2010년 6월 5일
뉴욕에서 일버커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당부말씀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뉴멕시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려 오시는 타주 한인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멕시코주가 소셜넘버 없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몇 주 안 되는 주중 한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오셔서 생활을 하시고 거주지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주에서 소셜이 없이 생활을 하시시던 중에 신분증이 필요하시게 되어서 이곳에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면허취득을 시도하시는 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건당 \$2500~3000의 수수료를 받아 이곳에서 면허취득을 도와주고 있으며, 문제는 이들이 허위문서를 사용하거나, 다를 사람의 주소를 빌여 문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면허증을 받으시더라도 이곳에 최근부터 Audit 팀이 생겨 불시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길경우 바로 면허를 취소합니다. 특히 외국인 이름의 면허취득자에 중점을 두어 확인을 합니다.



(최근 입수한 사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브로커들은 교묘히 범망을 빼져나가고 피해를 보시는 분은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과 브로커를 도와 주소를 빌려주신 분들입니다.

정식면허는 임시면허 발급이후 Audit을 거친 후 해당 주소지로 발급이 되며 이사이에 주소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허위사실 적발시 면허는 취소되고, 해당파일은 INS 등 해당관청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임시면허를 받은 후 잠적하고, 당사자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불법체류신분으로 브로커들을 신고하지도 못하고 빨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개 25%정도 정식면허를 운 좋게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그 면허도 2차 Audit 등을 통해 취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들로부터 미주교민 분들이 피해보시는 일이 없길 기원하면 이를 공지하는 바이며, 뉴멕시코 교민들님 혹시라도 브로커들이 교민들의 주소를 빌려 사용하려 접근 시에는 바로 다음 주소로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MVD.NewMexico.gov

(<http://www.mvd.newmexico.gov/Drivers/Fraud.htm> | zerofraud@state.nm.us)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브로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아래 한인회 웹주소에 있는 질의 및 답변란에 올려주셔서 추가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anm.com/2290#comment_278511)

CSI #2026850

NEW KOREA TRAVEL SERVICES

새한여행사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싼비행기! 신속한 서비스!

항공권

-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
- 한국행 가장 저렴한 항공권(항공+이민)
- 동경, 홍콩, 대만, 마닐라, 동남아 가장 저렴한 항공권
- 전우회 가입 쌤 요금 항공권 보유, 전우회 카드
- 미국내선 가장 저렴한 항공권
- 홍콩비행기 아주 저렴 요금
- 단체 특별할인요금

호텔

-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라, 콘래드, 워커힐, 라마다 호텔등
호텔대리점 및 전세계 호텔예약)

관광

- 유럽관광·하와이관광·성지순례
- 신혼여행·크루즈 관광
- 국내외 등·중·서부 정기관광
- 브리티시·디팡Tour Packages
- 중국·베트남·소련·비자대행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와의 공동 대리점입니다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홀리필드+뉴햄프셔, 나라은행 진피몰)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건강 손 마사지



여성동아

손을 수시로 눌러주거나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건강해진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너무 세지 않은 강도로 문지르듯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다.

1. 손톱 양옆 누르기

엄지와 검지로 손톱 양옆을 꼭 누른다. 열 손가락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고 특별히 더 아픈 부위를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누른다. 목의 긴장을 풀어 뒷목이 편안해진다.

2. 손가락 뒤로 젖히기

손가락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하나씩 뒤 쪽으로 젖힌다. 손가락에는 몸 전체의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손가락 사이 누르기

손가락 사이 갈라진 부위를 반대편의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눌러준다. 임파선과 연결돼 있어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하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4. 손가락 전체 젖히기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반대편 손바닥을 대고 손등 쪽으로 서서히 밀어준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해주면 눈과 목의 피로가 풀린다.

양념게장 세일

4월 25일 까지 주문마감

한박스 \$15.00 (medium Togo box)

주문: A-1 마켓 275-9021
(신옥주 집사)



Tip III 무우, 쑥갓, 두부, 대파를 넣고 게장찌개로도 요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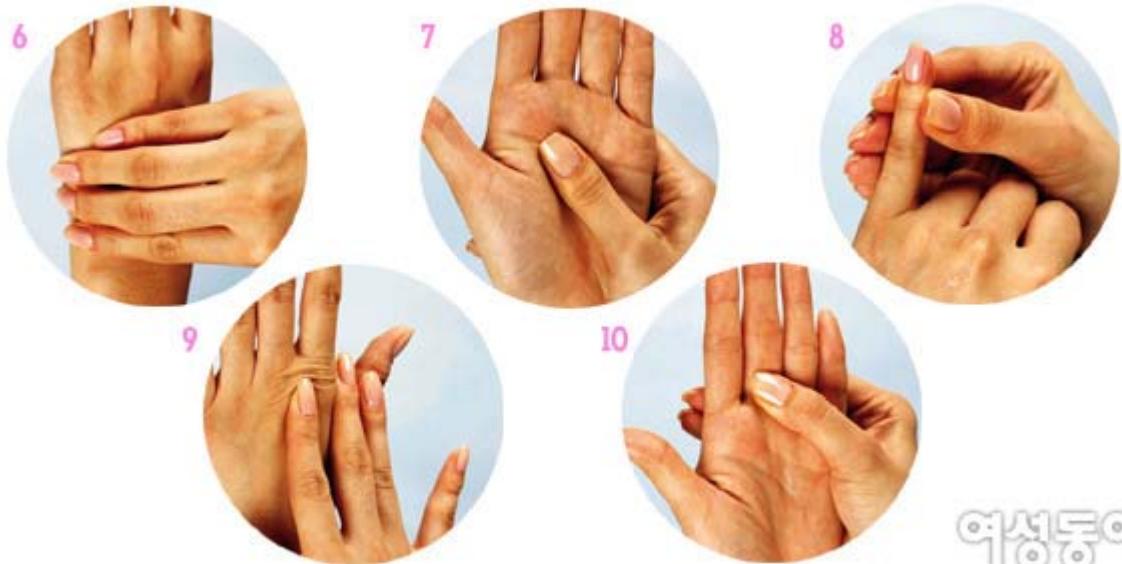
혹시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 주최

5. 엄지 주무르기

엄지를 반대편 손가락 전체로 움켜잡고 꾹꾹 주무른다. 두통이 있을 때 하면 머리가 밝아진다.



여성동아

6. 손목 바깥쪽 누르기

손목 가장자리의 움푹 들어간 곳을 수시로 눌러준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고 특히 더 아픈 곳은 시간 날 때마다 꾹꾹 눌러준다.

생리통이나 허리통증 해소에 좋다.

7. 손바닥 중앙 문지르기

손목 중앙 바로 위부터 손바닥 중앙까지 엄지로 밀듯이 문지른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

8. 새끼손가락 옆쪽 위아래로 문지르기

새끼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꾹꾹 눌러준다. 다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9. 검지로 손등 마사지하기

손등의 손가락 뼈 사이 사이를 검지로 누르면서 밀어 마사지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해주면 도움이 된다.

10. 손가락 아래쪽 누르기

손바닥과 손가락 경계선을 반대편 엄지로 꼼꼼히 눌러서 마사지한다. 눈이 피곤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날 때 눌러주면 효과가 있다...

(출처: 여성동아, 이석종 목사님 제공)



새집마련에 도움 될 부동산 정보

Ingles Realtors Company 죄 커분

2008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경기로 어떠했으며, 내년은 어떻게 될까 걱정들이 많다.

2010년 봄에는 1st Time home buyer credits(처음 집사는 사람에게 \$8,000 돌려주는 혜택) 때문에 2009년 봄보다는 나은 경기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9.4%나 되는 높은 실직자 수치 때문에 2009년보다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힘든 부동산 경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 몇 년의 Existing single-family home과 New home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한다.

참고로 **Average Price**: 팔린 100집÷100=평균가격

Median Price: 101집에서 50집 높은 가격, 50집 낮은 가격으로 나누어서 중간가격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죄 커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YEAR-END AVERAGE RESIDENTIAL HOME SALES PRICE

Class R1 - Single Family Detached, Greater Albuquerque Area

Year	Average Price	Change in Avg. Price From Previous Year	Change in % From Previous Year
2005	\$204,502	+\$22,012	+12.06%
2006	\$227,833	+\$23,331	+11.41%
2007	\$243,089	+\$15,256	+6.70%
2008	\$232,626	+\$10,463	-4.30%
2009	\$214,662	+\$17,964	-7.72%

2008 vs. 2009 RECAP for Greater Albuquerque Area

Calss R1 - Single Family Detached

Class R1	2008	2009	Change '08vs.'09	% of Change
Average Price :				
Median Price :	\$232,626	\$214,662	-\$17,964	-7.72%
Total Sold & Closed	\$191,500	\$180,000	-\$11,500	-6.01%
:	7,309	7,145	164	-2.24%
Total Dollar Volume	\$1,700,264,310	\$1,533,756,628	-\$166,507,682	-9.79%
:				

【1st QTR 2020 & 2009 RECAP for Albuquerque (Areas 10-121)】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206,557	\$209,777	-1.53%
Median Sale Price :	\$170,000	\$179,000	-5.03%
Total Sold & Closed :	972	827	17.53%
New Listings :	3,052	2,703	12.91%
Days on Market :	75	84	-10.71%

【1st QTR 2020 & 2009 RECAP for Rio Rancho (Areas 140-162)】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187,972	\$219,284	-14.28%
Median Sale Price :	\$166,750	\$189,875	-12.18%
Total Sold & Closed :	255	189	34.92%
New Listings :	757	729	3.84%
Days on Market :	74	89	-16.85%

【2nd QTR 2020 & 2009 RECAP for Albuquerque (Areas 10-121)】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215,146	\$220,887	-2.60%
Median Sale Price :	\$180,000	\$185,000	-2.70%
Total Sold & Closed :	1,564	1,300	20.31%
New Listings :	3,201	2,955	8.32%
Days on Market :	64	73	-12.33%

【2nd QTR 2020 & 2009 RECAP for Rio Rancho (Areas 140-162)】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184,954	\$192,510	-3.92%
Median Sale Price :	\$165,000	\$172,300	-4.24%
Total Sold & Closed :	390	314	24.20%
New Listings :	771	770	0.13%
Days on Market :	70	99	-29.29%

【3rd QTR 2020 & 2009 RECAP for Albuquerque (Areas 10-121)】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228,244	\$218,347	4.53%
Median Sale Price :	\$185,000	\$185,485	-0.26%
Total Sold & Closed :	1,113	1,490	-25.30%
New Listings :	2,845	2,888	-1.49%
Days on Market :	68	70	-2.86%

【3rd QTR 2020 & 2009 RECAP for Rio Rancho (Areas 140-162)】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182,144	\$190,548	-4.41%
Median Sale Price :	\$165,000	\$169,000	-2.37%
Total Sold & Closed :	284	353	-19.55%
New Listings :	734	669	9.72%
Days on Market :	76	85	-10.59%

【4th QTR 2020 & 2009 RECAP for Albuquerque (Areas 10-121)】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222,351	\$211,805	4.98%
Median Sale Price :	\$178,750	\$175,000	2.14%
Total Sold & Closed :	994	1,334	-25.49%
New Listings :	1,981	2,190	-9.54%
Days on Market :	79	71	11.27%

【4th QTR 2020 & 2009 RECAP for Rio Rancho (Areas 140-162)】

Class R1	2010	2009	% of Change
Average Sale Price :	\$193,355	\$188,756	2.44%
Median Sale Price :	\$169,450	\$165,000	2.70%
Total Sold & Closed :	244	354	-31.07%
New Listings :	551	558	-1.25%
Days on Market :	76	78	-2.56%

Inspection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여러 절차와 확인이 필요하다. 융자(Mortgage)가 적절한 이자율과 좋은 조건을 갖추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할 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일단 Seller와 Buyer의 계약서(Purchase Agreement)가 성사되면 그 계약서와 보증금(Earnest Money)은 Title Company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그 집의 상태에 대한 검사(Inspection)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 보기로 하겠다.

1. Electric (전기)

보통의 전기선은 Copper로 되어 있지만 25년 전후의 집은 간혹 Aluminium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Copper Wiring으로 Pig-tail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2. Heating / Cooling (온방과 냉방)

온방시설에는 Central Forced Air(gas 이용), Hot Water Baseboard(물이용), Radiant(물을 이용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함)등이 있다. 냉방에는 Refrigerated Air과 물을 사용하는 Evaporative Cooling 이 있는데 Evaporative Cooling은 New Mexico처럼 건조한 지역에서 적절하며 저렴하고 습도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습도가 높은 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그 효과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Evaporative Type의 관리 방법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Cooler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Filter도 교체하는 것이 좋겠고, 겨울에는 물을 모두 빼내어 배관(Water Pipe)이 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Plumbing (배관)

Water Pipe를 요즘에는 Copper, Lead, Galvanized 등을 사용하지만 20년 넘는 집에서는 간혹 Polybutylene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물이 새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Inspector에게 자세히 물어 보아야 한다.

4. Roof (지붕)

Flat 지붕과 Pitched 지붕이 있는데 Flat 지붕은 대부분 Tar & Gravel로 되어 있고 수명은 15~20년 정도이며, Pitched 경우에는 Shingles과 Tile이 있으며 수명은 15~20년 이지만 필요한 때에 잘 손질하는 것이 무엇보다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5. Structure (건물의 구조)

건물 전체에 대한 이상여부를 살펴보는 검사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Inspection 회사의 검사관이 Framing, Cracks, Bulges 등을 살펴보지만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으면 Professional License를 가진 Engineer를 고용할 수 있다.

6. Termite (흰 개미)

천장, 바닥, 벽속에 있는 나무를 짚아먹는 개미이며 심하면 이로 인해 집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2~3년 된 집에서도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흰 개미가 자리 잡는데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므로 오래된 집에서 자주 생겨난다. 초기에 발견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Inspection Point이다.

7. Radon (라듐의 봉괴물)

우라늄(Uranium)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방사능이 있는 Gas가 돌, 흙, 물 등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해를 끼치는(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Gas이다. Radon Test 결과가 4pCi/L(Picocurie per liter of Air)이하로 나오면 안심해도 된다. 모든 Inspection 비용은 Seller와 Buyer간의 협의에서 결정되지만 대부분 1yr Warranty Inspection과 Termite 비용은 Seller측에서 부담하고 Engineer's Structured Inspection 과 Radon Test는 Buyer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여러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므로 Buyer는 Inspection에 꼭 참가하여 집 상태의 의문점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고 집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09년과 2010년의 New Home에 관한 변동사항

Average & Median new home base asking prices & square footage in Albuquerque, Rio Rancho

Albuquerque 2009 Average: \$252,944

Albuquerque 2010 Average: \$238,899

Annual percent change: -5.6% decrease

Albuquerque 2009 Median: \$226,338

Albuquerque 2010 Median: \$209,950

Annual percent change: -7.2% decrease

Rio Rancho 2009 Average: \$296,270

Rio Rancho 2010 Average: \$278,092

Annual percent change: -6.1% decrease

Rio Rancho 2009 Median: \$249,789

Rio Rancho 2010 Median: \$241,000

Annual percent change: -3.5% decrease

Albuquerque 2009 Average: 2,051sq. ft.

Albuquerque 2010 Average: 2,001sq. ft.

Annual percent change: -2.4% decrease

Albuquerque 2009 Median: 2,001sq. ft.

Albuquerque 2010 Median: 1,900sq. ft.

Annual percent change: -5.0% decrease

Rio Rancho 2009 Average: 2,324sq. ft.

Rio Rancho 2010 Average: 2,309sq. ft.

Annual percent change: -0.6% decrease

Rio Rancho 2009 Median: 2,280sq. ft.

Rio Rancho 2010 Median: 2,267sq. ft.

Annual percent change: -0.6% decrease

▶ 최근 6년 동안의 가격과 사이즈 변동사항

New Home Base "Brochure" Prices(Median) & Square Feet(Median)

Albuquerque

June 2004: \$163,100 / 1,954 sq. ft.

June 2005: \$171,950 / 1,924 sq. ft. (↑ 5.4%)

June 2006: \$202,245 / 1,988 sq. ft. (↑ 17.6%)

June 2007: \$233,990 / 2,026 sq. ft. (↑ 15.7%)

June 2008: \$229,900 / 2,051 sq. ft. (↓ 1.8%)

June 2009: \$229,900 / 2,051 sq. ft. (0%)

June 2010: \$219,950 / 1,900 sq. ft. (↓ 4.6%)

Rio Rancho

June 2004: \$156,445 / 1,874 sq. ft.

June 2005: \$182,500 / 2,130 sq. ft. (↑ 16.7%)

June 2006: \$248,679 / 2,330 sq. ft. (↑ 36.3%)

June 2007: \$283,500 / 2,376 sq. ft. (↑ 14%)

June 2008: \$278,990 / 2,403 sq. ft. (↓ 1.6%)

June 2009: \$241,490 / 2,261 sq. ft. (↓ 13.6%)

June 2010: \$239,495 / 2,261 sq. ft. (↓ 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민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진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기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일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일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신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종재서비스
Mediaitait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리스쿠르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사고/팔고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접어서 발송

To: